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계획

김도경* · 최원만** · 홍형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주)신화컨설팅 ·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Landscape Design Proposal for Seoul Yeouido Riverside Park

Kim, Do-Kyong* · Choi, Won-Man** · Hong, Hyoung-Soo***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hee University

**SynWha Consulting Co., Ltd.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Han Gang is a huge, attractive river which meanders through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However, during the modernization of Seoul, the river gradually lost its natural beauty and healthy condition. Han Gang Renaissance is a project to upgrade the look of the Seoul waterfront, by overcoming this disaster and reorganizing the surroundings of Han Gang.

This research articulates the design strategies and description of the prizewinning work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Yeouido Riverside Park that was linked to the Han Gang Renaissance Project. There are three key points that basically speak to the identity of the new waterfront, Yeouido Riverside Park.

First, the current day Yeouido was recreated as an artificial island through the rapid expansion of the city and the initiation of the shore protection works. However, because it is the only island still remaining that shows the history of Han Gang, the park was designed to be the place which preserves the lyric of sand island and the emotional memory of riverside. Secondly, among the six districts of the Han Gang Renaissance Project, the two districts that are facing each other, Yongsan and Yeouido, are the central areas promoting international finance and business. Despite Yongsan's complete urban image, the exquisite harmony of pastoral scenes and skyscrapers of the Yeouido waterfront is presented to develop an active mutual relation with Yongsan. Lastly, this design scheme re-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ompetition's site, Yeouido Riverside Park, and a neighboring site, Yeouido Park.

Key Words: *Hangang Renaissance, Waterfront, Lyric, Pastoral Scenes, Yeouido Park*

국문초록

한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스케일의 매력적인 강이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일괄적인 호안공사로 직강화 되어 본연의 자연스러움과 하천의 건강성을 점차 상실하였다. 이를 극복하고 한강 중심의 개혁을 통해 수변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고급 브랜드화 하겠다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진행 중이다.

Corresponding author: Do-Kyong Kim, College of Art and Design, Kyunghee University, Yongin-si, Gyeonggi-do 446-701, Korea, Tel.: +82-11-713-3735, E-mail: kimdk@khu.ac.kr

본 연구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의도 한강공원 국제 설계경기 공모 당선작의 설계전략과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계획의 주안점은 기본적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이라는 새로운 워터프런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여의도는 비록 개발에 의해 인공적인 섬으로 변했지만 한강에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는 유일한 공간이다. 모래섬의 서정성과 물가의 감성적인 기억을 가지는 장소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6가지 지구 중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용산과 여의도는 중심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금융, 업무지역으로 조성된다. 용산의 철저히 도시적인 모습에 반해, 목가적 풍경과 고층건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색다른 풍경의 여의도 워터프런트를 제안하여 용산과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안에서는 현상공모 범위 밖인 여의도공원과 본 현상공모 대상인 여의도 한강공원 관계를 재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한강르네상스 계획, 워터프런트, 서정성, 목가적 풍경, 여의도공원

I. 서론

거대도시인 서울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강은 매력적인 오픈스페이스 요소이다. 그러나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하천 양안은 인공 호안으로 조성되어 직강화 되었다. 한강은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사라졌고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강 중심의 개혁을 통해 수변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고급 브랜드화 하겠다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회복과 창조라는 계획 기조를 두고,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조 개편을 통해 워터프런트 타운을 조성하고, 한강변 경관, 이용성을 개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중심, 강서, 강동의 3대 대권역을 설정하여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 하에, 12개 한강 공원을 고품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 중 중심대권역의 여의도와 용산 지구는 국제금융 업무 지구가 들어서게 되는 어반 코어(Urban Core)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시, 2007a; 2007b).

수변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발생지로서 문화적 요소의 축적이 많고, 도시 중에서도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높은 장소이다. 오늘날 워터프런트는 도시공간의 ‘최후의 프론티어’라고 불리며 도시문제 해결의 장, 신산업과 사업 육성의 장 등 매우 복합화된 도시에서 다양한 요청을 현실화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이다(전유찬 등, 1992).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보스턴시 재개발(Charlestown Navy Yard), 뉴욕시 재개발(South Street Seaport), 샌프란시스코시 재개발(Rincon Point-South Beach Project), 영국의 런던 도크랜드(London Docklands) 등 도시 재생을 위한 워터프런트가 활발히 조성되어 왔다. 또, 내륙지역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Wien)시에서는 부족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나우강(Donau River) 연안을 친수지역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확보한 사

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용지 확보, 도시 재개발과 여가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워터프런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는 국제 물류항과 배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단지가 조성 중이며, 여기에 조성되는 워터프런트형 수변공원 설계(홍형순 등, 2006)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인천의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이 국제업무 및 주거, 복합레저단지 등의 용도를 갖는 워터프런트로 개발 중이다.

본 연구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여의도 한강공원 국제 지명초청설계 공모의 공동 당선작의 설계 전략과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여의도 워터프런트는 여의도의 장소성을 반영하고, 추후 진행될 역동적인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 계획하면서,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고 물가의 기억을 되찾아 주고자 하는 서정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서정성의 교감을 자극하는 계획은 동시대 사람들의 기억 인자를 자극하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시간변화에 대응하는 감성의 완충 지대로서의 새로운 워터프런트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설계조건

1. 사업개요

본 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규모는 약 71.7ha에 이른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로 2009년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을 비롯한 반포, 뚝섬, 난지공원 등 4개의 공원에 대한 특화사업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12개의 한강공원 중 접근성이 양호하며 따라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는 공원이다. 따라서 주관기관은 본 대상지에 대한 설계경기를 ‘국제 지명 초청설계경기’

방식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국내 작가 4인, 국외 작가 4인이 지명 초청되었다. 각 초청 작가는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요구사항(Requirement)

공모지침에 제시된 기본원칙은 상위계획인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회복과 창조’라는 기조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753억 원 이내의 예정공사비 규모를 명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안이 작성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둔치의 활용과 토지이용에 대한 주안점은 우기시 침수에 의해 공간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일부를 성토하여 우기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시설물은 80년 주기 홍수위 높이로 성토된 지반위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성토는 현재 통수단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허용되었다. 특히 한강의 생태적 회복을 위해 인공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접공원과의 연계성과 관련된 주안점으로 샛강 생태공원과 연계된 공원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했다. 또한, 한강변을 따라 동서로 통과하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주차장 규모에 대한 요구조건은 설계 부지 내에 상시주차 용량 2,000대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성수기를 대비한 1,000대 이상의 예비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선박이용시설에 대한 요구조건은 총중량 5,000톤, 흘수 2.8m 이하의 국제여객선이 2대 이상 선착 가능한 접안시설 설치공간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선정하고 개념적인 구상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연전용 유람선과 한강구역을 운행하는 단거리 선박 등의 접안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였다.

기타 설계조건으로 부지 내에 위치한 광역상수도관은 제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인근의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배출되는 1일 1,900톤의 지하용수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상지 내의 교량 등 기존 구조물 활용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III. 계획대상지 해석

1. 인문환경

1) 배후도시

대상지의 인접 배후도시인 여의도는 주거와 일반 상업 지역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국회의사당, 주요 방송사, 신문사가

입지하고 있어 한국의 정치·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여의상류와 접한 20년 이상의 노후된 공동주거단지는 추후 고밀도 주상복합으로 개발 시 증가되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고려해야 한다. 여의도 중심 오픈스페이스인 여의도 공원과 2009년 완공 예정인 국제금융복합단지는 여의도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이용현황

여의도 한강공원은 주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고, 인지도가 높아 연간 전체 한강공원 이용자수의 55%인 2,800만명이 이용한다. 이용유형을 보면 벚꽃 축제, 불꽃 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에 이용객이 집중되며, 평상시에는 자전거 타기, 인라인 등 옥외체육활동 위주의 이용행태를 보인다.

차량 소통은 4개소의 입구와 5개소의 출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접근은 3개소의 지하통로나 상부 계단을 통해 진입이 이루어진다. 인접도로로 인해 한강공원과 배후도시 지역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과 좁은 보행 통로로 인해 보행 접근 시 불편 등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보행 진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때 지하보도, 육교와 같은 소극적인 수단이 아니라 도시 조직의 재생과 변화로 풀어 나가려는 적극성(진석현과 김진균, 2005)이 요구된다.

3) 공간 및 시설 활용 현황

부지 내 공간 활용현황을 보면, 총 3,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4개소의 대형 야외 주차장이 있다. 이에 대해 공모지침에는 2,000대 규모의 상시 주차, 1,000대 규모의 예비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야외주차장이 야기하는 경관의 악영향을 해소하고 보행 중심의 공간에 비중을 두는 공원조성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축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은 단체 이용자들의 예약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옥외수영장은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계절 활용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매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간이건축물로서 홍수 시마다 침수가 반복되므로 위치와 시설형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듯 유사한 시설들과 단조로운 활용 현황은 한강변에 위치한 여타 공원들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특화 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차별화된 시설과 활용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수문현황

1) 수위

대상지에 접하는 한강의 유로 연장은 4.8km이며, 강폭은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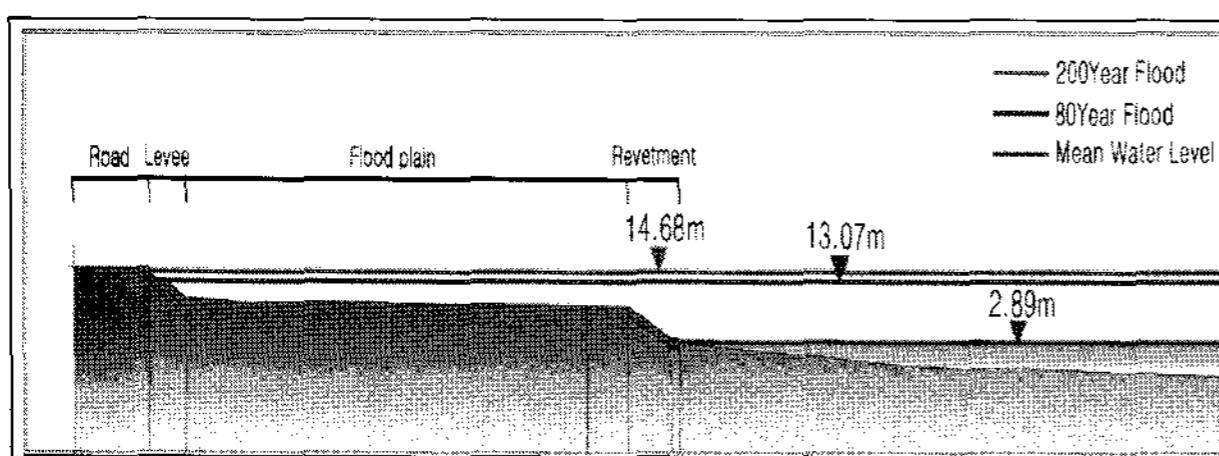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수위 현황단면

자료: <http://hangang.seoul.go.kr>

대 1,236m이고, 최소 807m이다. 7~8월에 집중되는 호우로 인해 4년에 1회 정도 대상지가 침수되며, 80년 주기와 200년 주기 홍수 시에는 현 도로 레벨까지 수위가 올라간다(그림 1 참조). 평상시에는 서해안의 조수 간만의 차가 영향을 미쳐 평수위를 기준으로 상하로 각 80cm 정도의 수위차를 보인다.

2) 침식 및 퇴적

여의도는 1900년대에는 200만평의 거대한 모래섬이었을 정도로 퇴적작용이 활발한 지역이었다(그림 2 참조). 호안 공사로 인해 현재는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한강의 흐름과 유속의 정도에 따라 구역별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밤섬의 면적이 퇴적에 의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서강대교 부근이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구역은 세าะ작용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3 참조).

IV. 계획의 주안점

선사시대부터 한강이 개발되기 전까지 강과 사람은 밀착되어 있었다. 수운 기능과 물놀이, 배놀이를 즐기는 풍류, 빨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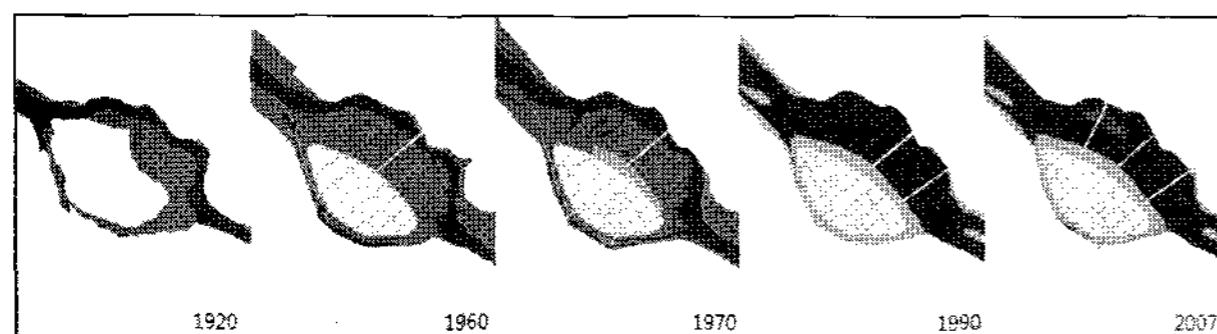


그림 2. 퇴적에 의한 하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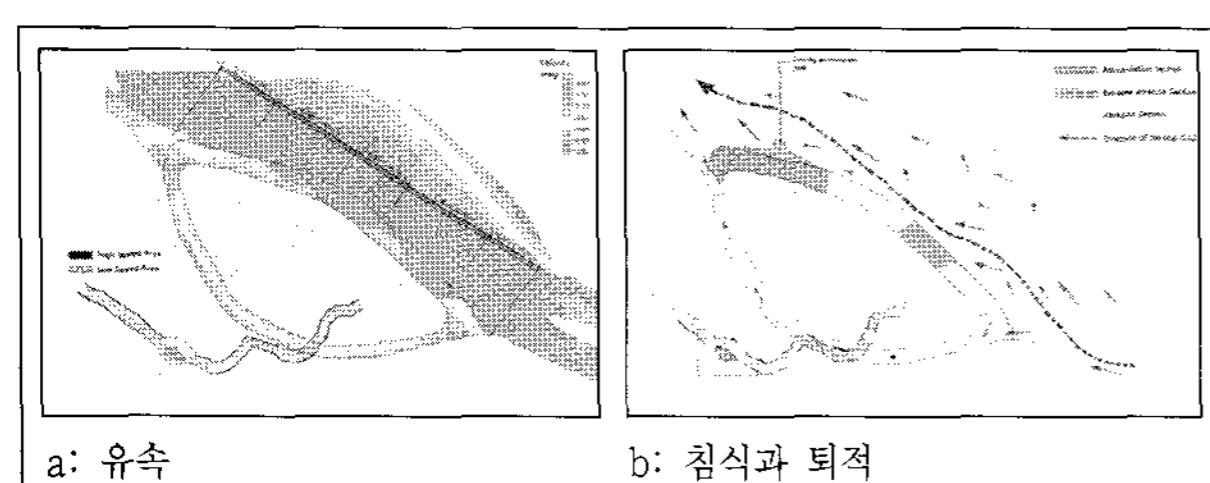
자료: <http://hangang.seoul.go.kr>

그림 3. 하천 유속과 흐름에 따른 퇴적과 침식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2007; 전형준, 2000
을 토대로 재작성

하는 일상, 고기잡이의 생계, 용왕제와 같은 축제까지 오랜 세월 강과 밀착된 우리의 삶이 존재했다. 그러나 1960년대 한강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고, 강은 단지 도시의 뒷모습이 되어 사람들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큼 세계에서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어냈다. 급격하게 만들어진 도시 속에서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며 전통적인 정서 속에서 위안을 얻는다(박현호, 2005). 항토적 서정성은 근대화의 피로감을 달래주고 서정적인 직관 속에서 고도의 미적 경험과 자신의 존재를 예술적으로 증명하게 한다. 콘크리트 호안을 허물고 물 가까이로 사람들을 끌어내어 우리만의 강 즐기기와 강과 공존했던 삶을 회복하면, 복잡한 도시에서 한강은 더없이 풍족한 모성이 된다.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서정적인 감성의 완충지대는 향후 역동적인 도시 변화에 넉넉한 정서적 기반이 되며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한다.

본 설계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워터프런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3가지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는, 한강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유일한 섬인 여의도, 두 번째는 여의도와 용산과의 관계 설정, 마지막으로 여의도 공원과의 네트워크를 주요 이슈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여의섬

섬은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상향의 장소로 기억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과거 한강의 커다란 5개 섬 중 하나인 여의도는 흐드러진 모래가 펼쳐진 200만평의 섬이었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여의도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깊은 시간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현재 여의도는 비록 개발에 의해 인공적인 섬으로 변했지만 한강에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는 유일한 섬이다. 모래섬의 서정성과 물가의 감성적인 기억을 가지는 장소로 계획하고자 한다.

2. 용산과의 관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6개 지구 중 한강의 양안에 마주하고 있는 용산과 여의도는 중심 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금융, 업무 지역으로 조성된다. 용산은 매우 고밀, 집약적이며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 반면, 여의도는 섬의 장소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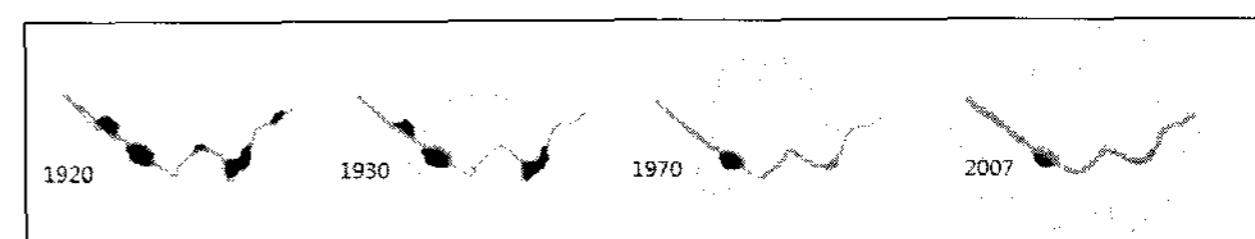


그림 4. 시간에 따른 한강의 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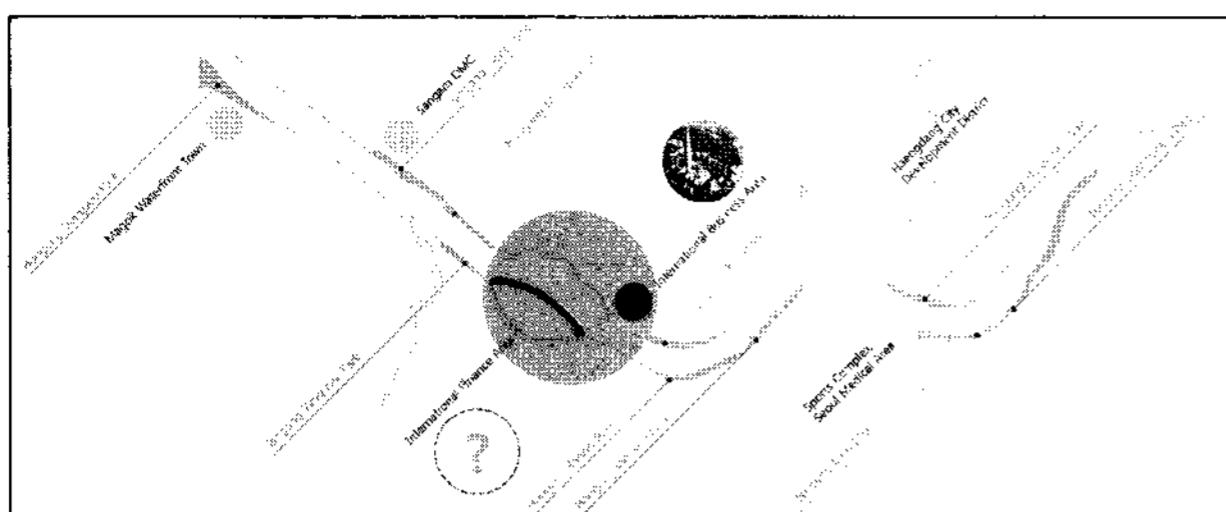


그림 5. 용산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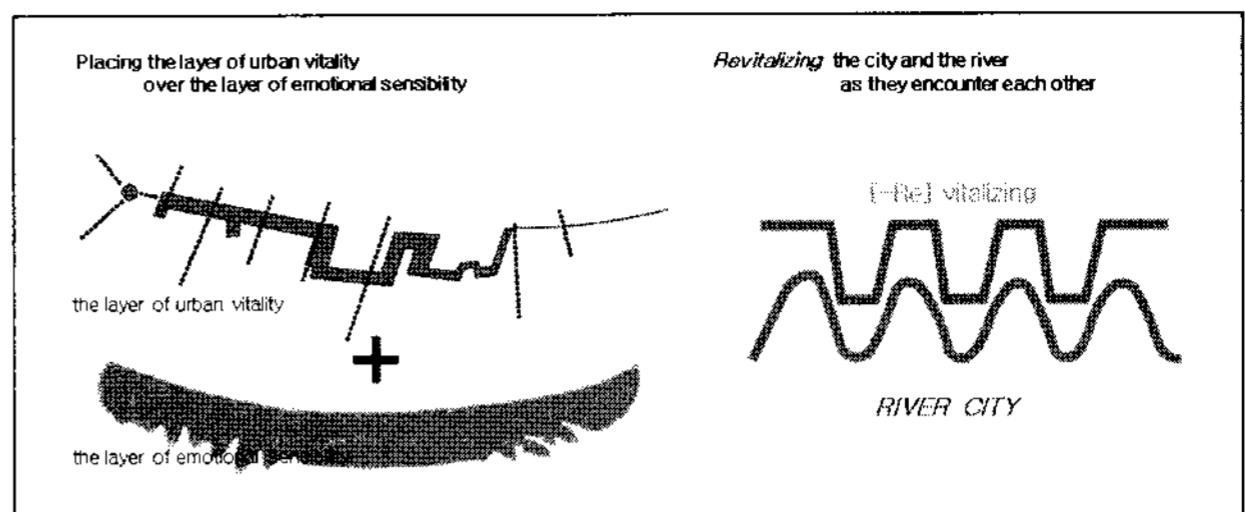


그림 7. 마스터플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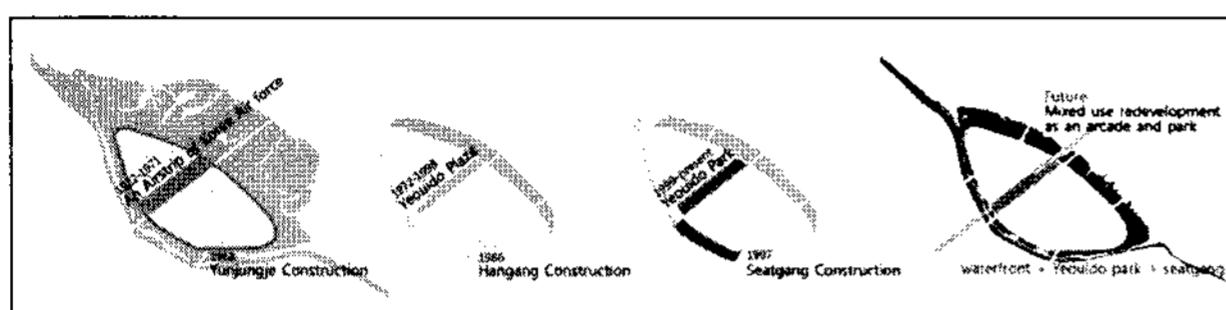


그림 6. 여의도공원과의 관계

자료: 정인하, 1996; 이윤영, 200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40년 도시역사를 기반으로 미래의 변화를 수용한다. 용산의 철저히 도시적인 모습에 반해, 목가적 풍경과 고층건물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색다른 풍경의 여의도 워터프런트를 제안하여 용산과의 적극적인 상호관계(reciprocity)를 형성하고자 하였다(그림 5 참조).

3. 여의도공원과의 관계

여의도공원은 여의도의 역사성을 대변하는 장소이며, 현재는 여의도의 주요 오픈스페이스로서 문화와 일상을 수용하는 장소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장, 군부정권 시대에는 광장으로, 문민정부 시대에는 녹색 섬의 모습으로 변했다(그림 6 참조). 현재는 여의도의 주요 오픈스페이스로서, 여의도를 순환하는 수변공원과 샷강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새롭게 계획하는 워터프런트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도시 재창조의 잠재력을 가지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V. 기본계획

앞서의 세 가지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계획안을 구체화하였다. 계획안은 한강의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과의 상호관계, 여의도의 기존 오픈 스페이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국적인 정서와 서정성을 기반으로 한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대상지의 해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배후 도시와의 유기적 연계', '쾌적한 이용을 위한 접근환경 개선', '공간 및 시설 활용방안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또, 여의도 지역 한강의 수문 현황을 토대로 강변경관 조성, 건강성 회복, 수제부 조성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물과 면하는 경계, 도시와 면하는 경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강과 도시가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가 창출하는 장소로 계획하였다.

1. 계획안의 구조

여의도 워터프런트 계획은 기반이 되는 층과 도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층(layer)으로 구성한다. 기존 호안을 허물어 한강 '물'과 접하는 면적을 늘리고, 수변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만한 지형의 워터프런트 기반을 만들어 준다. 여기에 도시의 요구와 성격을 반영한 도시 레이어를 얹어 도시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곳은 도시의 일상을 편안하게 수용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도입한 프로그램이 수시로 진행되는 다이내믹한 장소이다.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개 레이어가 다양한 이용자들과 일상적인 행사, 대규모 이벤트 프로그램과 만나면서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감성과 활기가 있는 새로운 워터프런트 계획은 도심 속에서 물과 쉽게 마주하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도시 생활의 일상을 풍부하게 한다(그림 7 참조).

2. 계획전략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인 계획 전략은 시민들에게 '물가'를 다시 찾아줌으로서 도시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계획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의도를 함축한 선언적 표현으로 '물과의 경계를 허물다'와 '도시와의 경계를 허물다'가 사용되었다.

1) 물과의 경계를 허물다.

불과 40년 전까지 한강은 삶의 터전이면서 놀이터였다. 사람과 물과의 소통방식이 물가에서의 우리식 정서를 만들고, 하나의 문화로 발전했다. 물과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 우리식 정서를 끌어내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1)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강가를 다시 찾는 서정성을 재현하기 위해 콘크리트 호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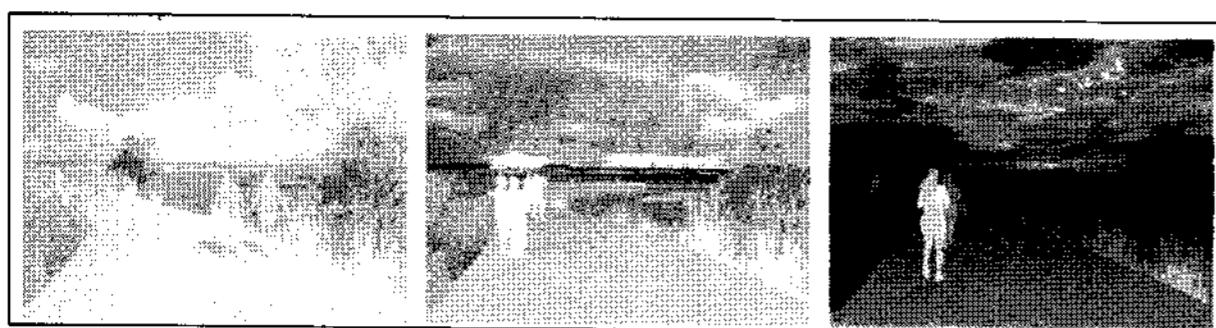


그림 8. 경관 연출



그림 9. 수변 데크 이미지

허물어, 강물이 조금씩 넘나드는 전원의 강가 풍경을 연출하였다. 강 가까이에서 다양한 수위변화, 계절, 날씨 변화를 눈으로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경관을 제공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물 높이가 변하고, 비가 올 때는 작은 섬이 되는 둔덕과 해질녘의 운치 있는 강변이 여의도 일상을 풍부하게 하였다(그림 8, 9 참조).

(2) 강의 건강성을 회복한다.

콘크리트 호안을 허물어 우리 정서에 맞는 사면(slip)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수심이 낮은 자연스러운 형태의 호안은 물과의 접촉 가능성을 높여, 생태적인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일시적으로는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한 수위의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제에 의한 모래톱의 변화를 유도하여, 강이 자연스럽게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0, 11 참조).

현재 한강의 세굴 정도에 따라 여의도 상·하류 호안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상류의 침식 구간은 안정된 구조를 기반으로 유속 저감을 위해 물의 흐름과 반하는 형태의 수제를 조성하여 퇴적을 유도하고, 하류의 퇴적구간은 물의 흐름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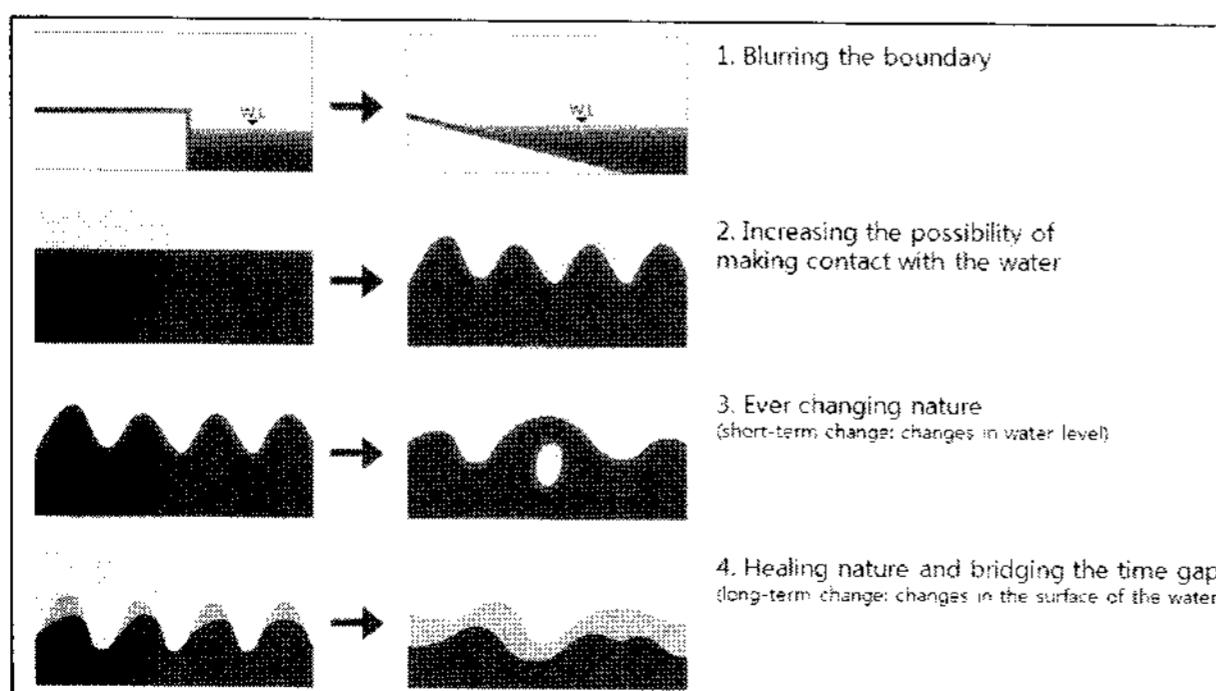


그림 10. 호안 계획



그림 11. 호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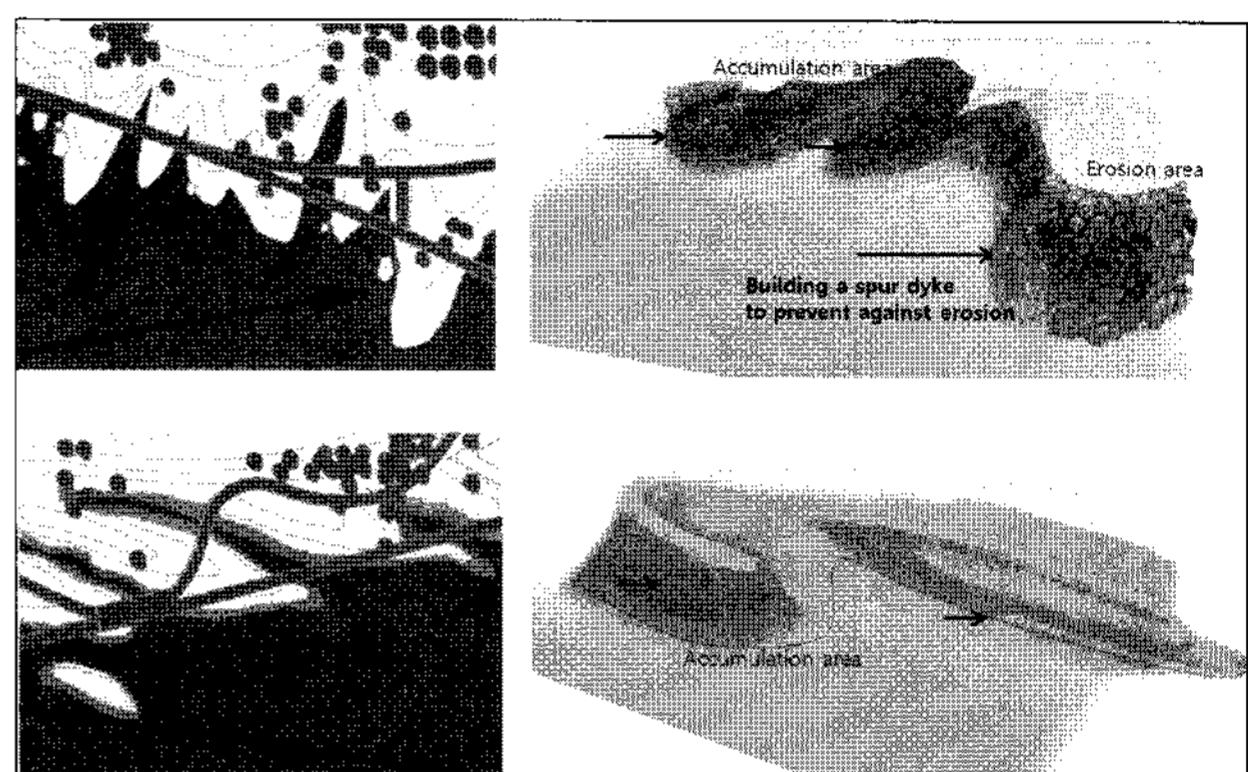


그림 12. 수제부 계획

은 방향의 수제부를 조성하여 현재의 퇴적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그림 12 참조).

2) 도시와의 경계를 허물다.

급변하는 도시와 감성적인 강이, 만나고 소통하기 위한 완충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의 발전 속도와 일상의 시간을 수용하는 도시형 워터프런트를 계획한다. 자연스럽게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물과 쉽게 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 속의 오아시스 같은 장소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1) 배후 도시와 소통하는 워터프런트

수변 공간이 생활권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특성 및 시민 수요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바람직하며 주변 지역의 특성별 유형 연구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따라서 배후 도시와의 소통을 위해 여의도의 지구별 성격과 도로 계획, 대중교통 체계, 개발 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 레이어를 계획하였다. 즉, 워터프런트와 면한 여의도는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첫 번째는 63빌딩과 주거지역, 두 번째는 여의도 공원과 금융·업무지구, 세 번째는 국회의사당과 윤중로 지역이다(그림 14 참조).

위의 사항을 기반으로 주요 오픈스페이스인 여의도 공원과 연계된 지역을 중심지구로 계획하고, 여의 상류와 하류 도시 레이어의 성격을 부여한다. 여기에 주요 가로를 연장하여 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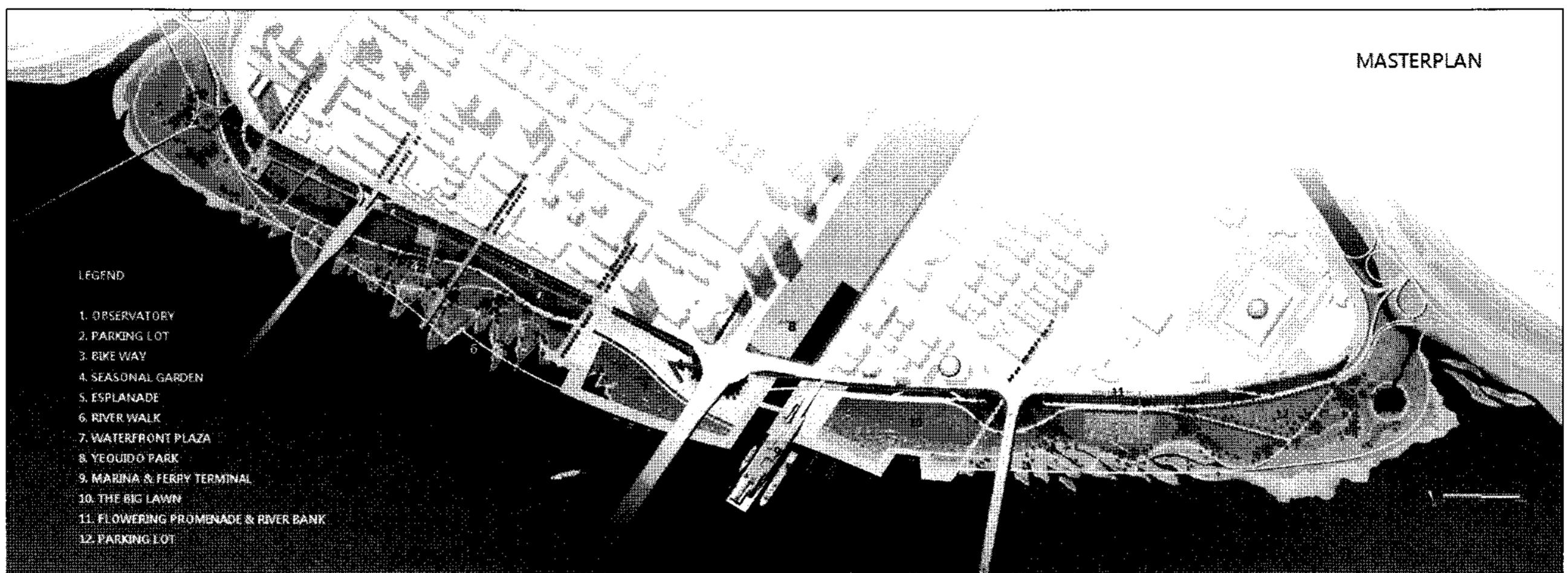


그림 13. 마스터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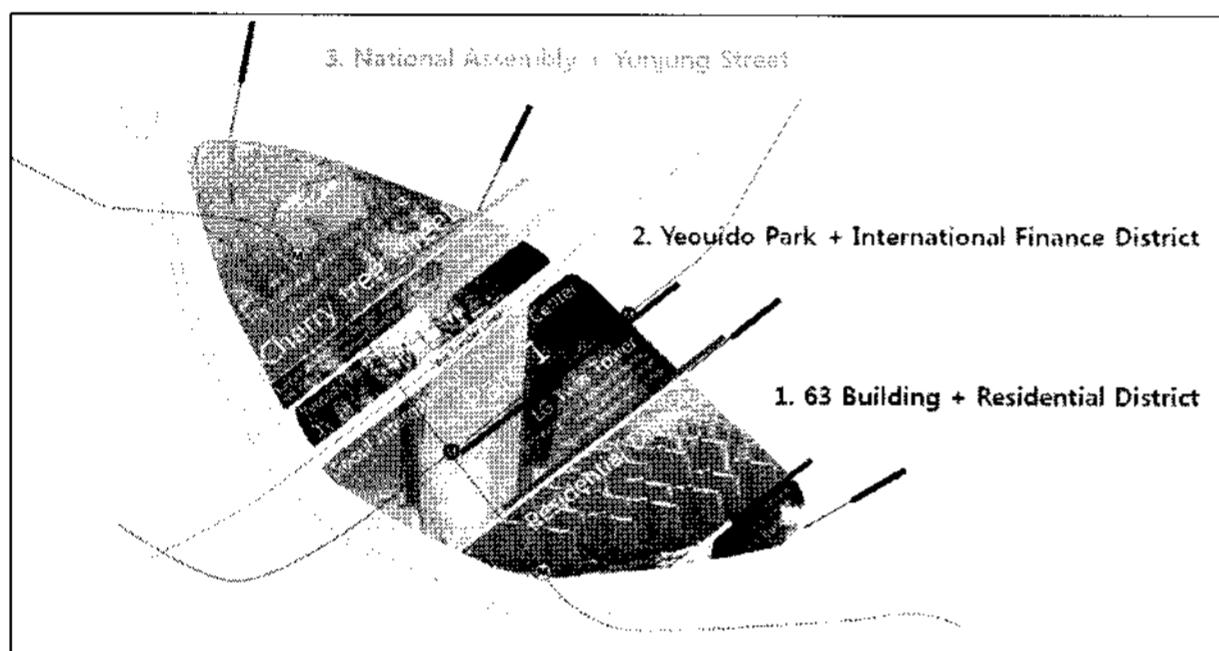


그림 14. 배후도시 구역별 성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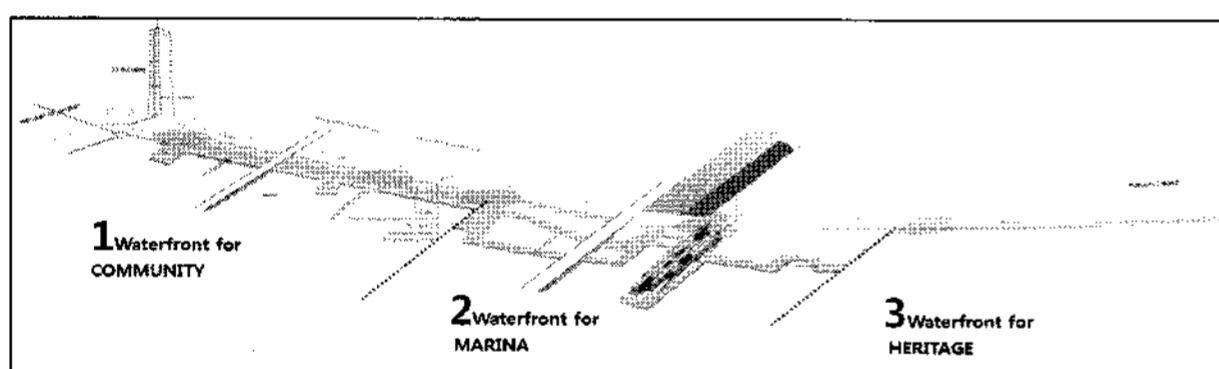


그림 15. 도시 레이어

프런트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접점은 여유 공간으로 계획하였다(그림 15 참조).

(2) 3가지 성격의 워터프런트

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런트

63빌딩과 인접하고, 주거지구와 면하는 지역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일상적인 흥미와 공간의 효율을 위해 다층 구조로 계획한다. 성토를 통해 기존 보도를 워터프런트 쪽으로 50m 내외로 확장함으로써 가로공원으로 조성하고 하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주요 공간인 도시형 워터프런트는 가로 공원과 900m에 이르는 친수 공간, 수변쉼터, 큐브를 배치하여 다양한 도시 문화 활동의 기반을 제공한다(그림 16,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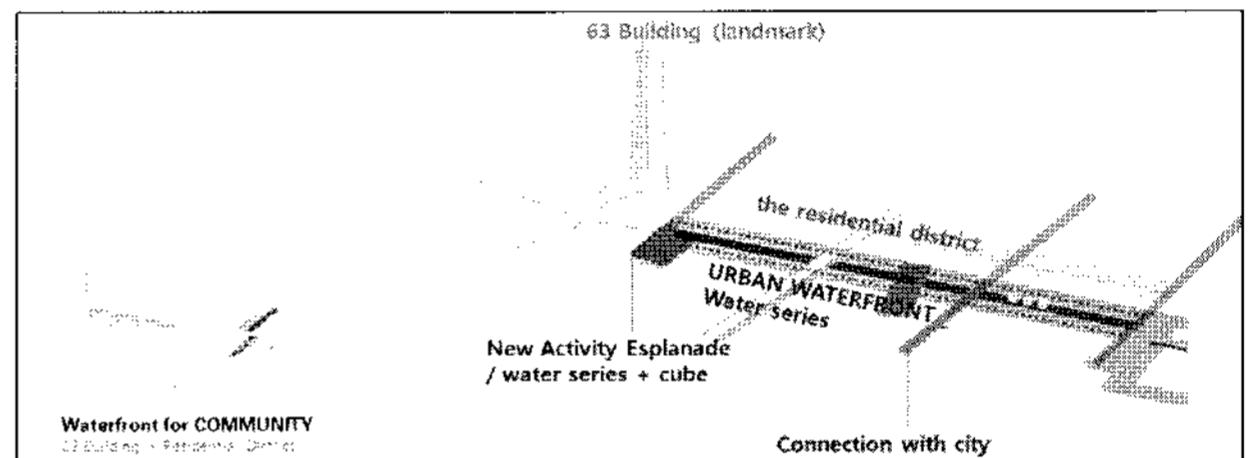


그림 16.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워터프런트



그림 17. 도시형 워터프런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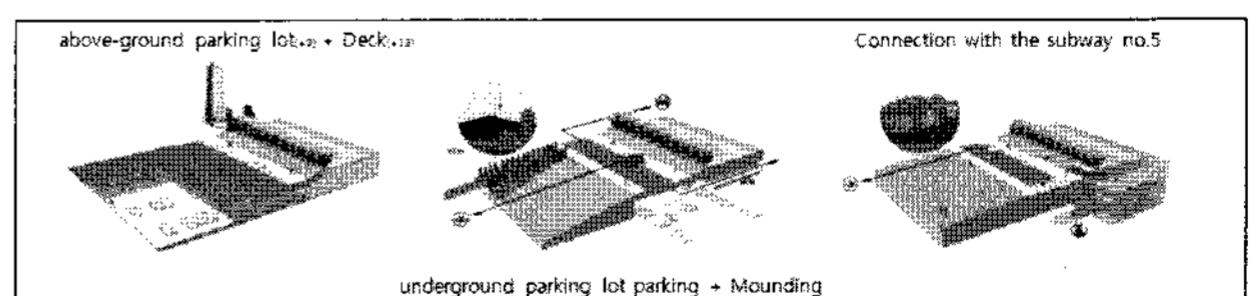


그림 18. 성토 구간 상세계획

부분별로 주변 여건에 맞춰 성토 구간 상·하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옥외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63빌딩과 인접하여 옥외 주차장이 계획된 구간의 상부 데크는 한강을 조망하는 공간이며 이벤트 개최의 장소로 활용한다.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지하통로를 통해 보행 진입이 가능하다(그림 18 참조).

② 마리나지구와 워터프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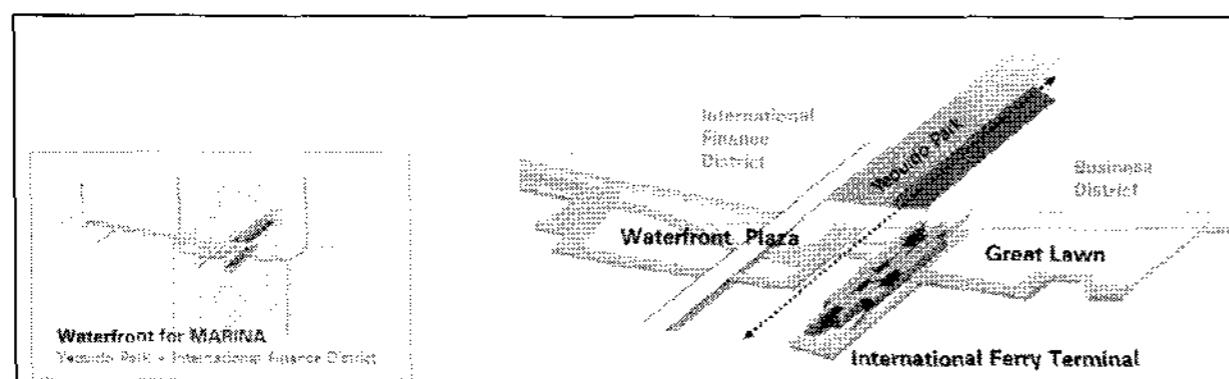


그림 19. 마리나지구와 워터프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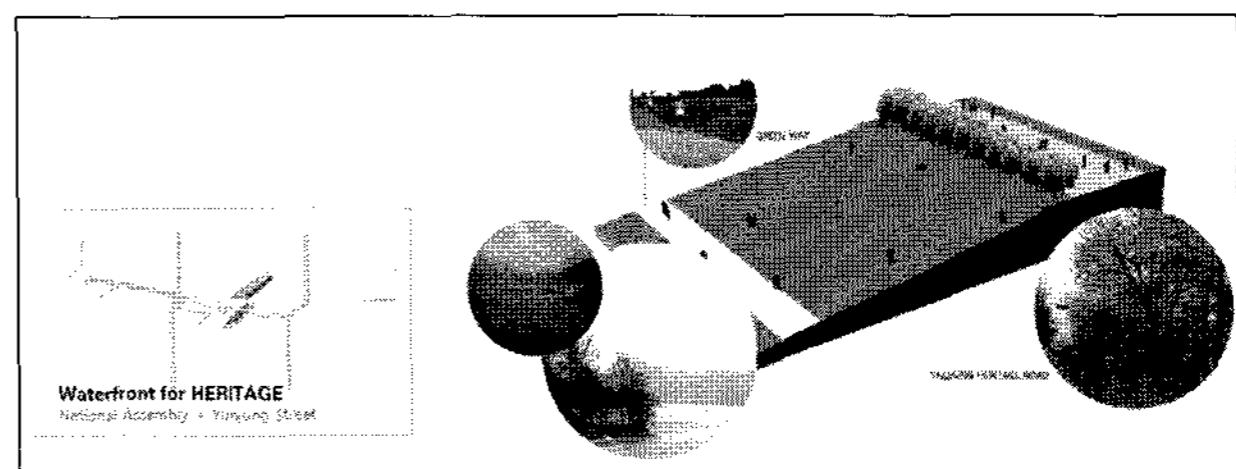


그림 22. 지역의 유산과 워터프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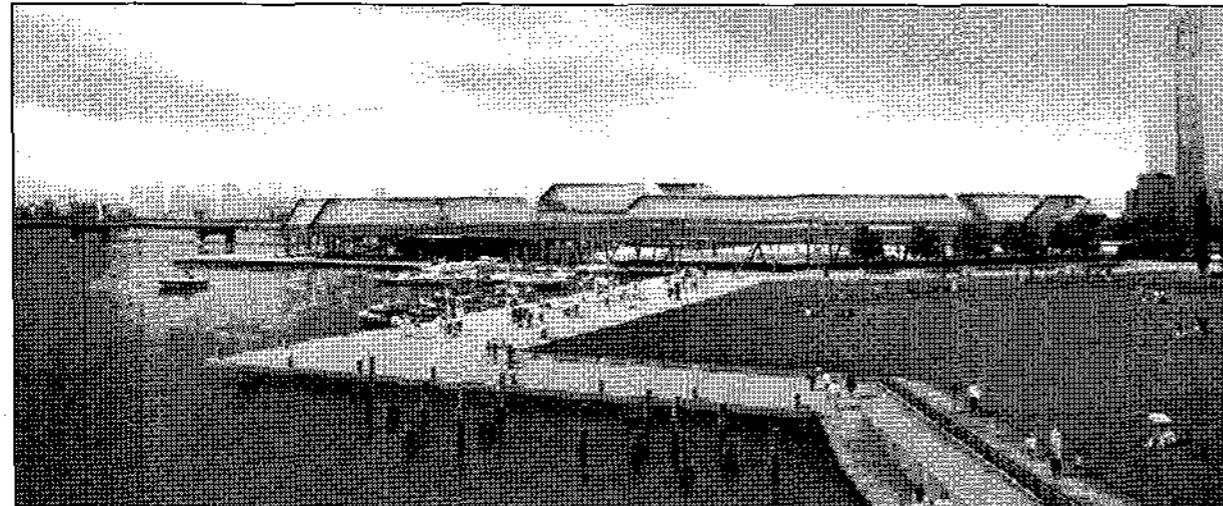


그림 20. 마리나 이미지

국제금융지구 및 여의도 공원과 면하는 지역은 국제 여객터미널과 마리나,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여의도 워터프런트의 중심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도시와 강을 연결함으로써 여의도의 새로운 관문으로 조성한다. 도심과 한강의 적극적인 연결과 도심 재창조에 있어 여의도 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개발 가능성을 감안한 공원 계획을 제안하였다. 마리나와 완만한 경사의 잔디광장은 도시 규모의 이벤트와 일상적 이용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로 계획하였다(그림 19, 20 참조).

지하철 용출수를 활용한 캐스케이드형 여울을 도입하여 워터프런트와 여의도 공원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유도하고, 샛강, 여의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에 이르는 오픈스페이스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여객터미널은 부유식 구조물로 수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레벨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그림 21 참조).

③ 지역 특유의 유산과 워터프런트

국회의사당과 40년 넘은 벚나무 길로 유명한 윤중로 지역이다. 이곳은 국회의사당과 인접하여 밀도가 가장 낮은 구간이므로 기존 벚나무 길의 운치를 살리는 워터프런트로 계획하였다. 낮은 구릉에 앉아 밤섬을 바라보고 한적하게 벚꽃 길을 거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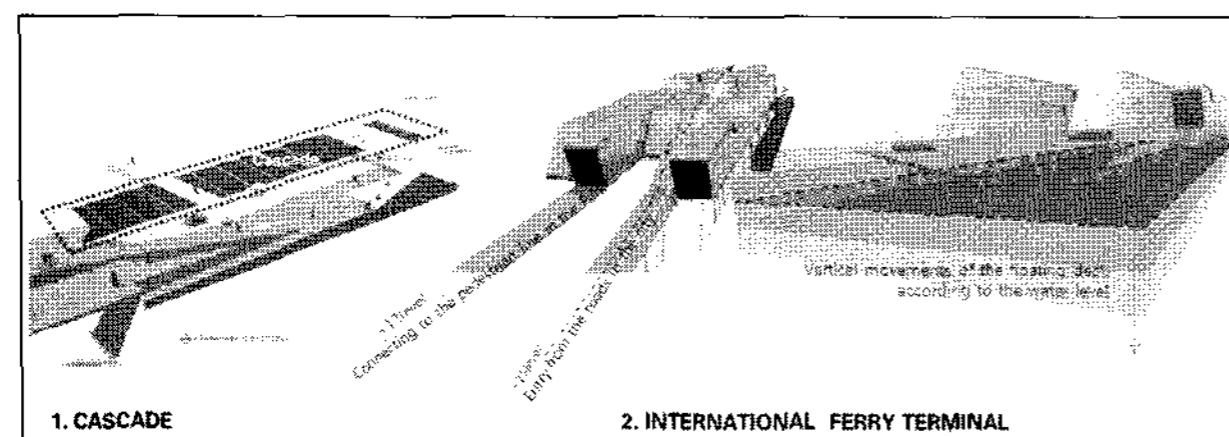


그림 21. 캐스케이드와 국제여객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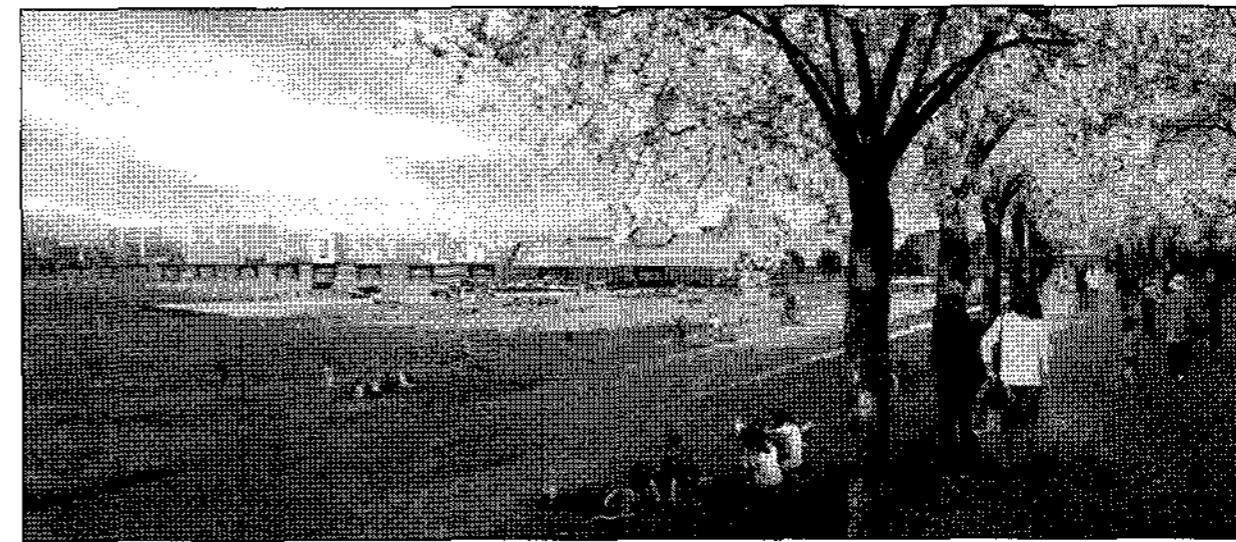


그림 23. 윤중로 구역 이미지

수 있는 서정적인 옛 강둑을 재현하고자 하였다(그림 22, 23 참조).

VI. 세부계획

1. 주차 및 교통계획

주차 계획은 기존의 방대한 면적의 야외 주차장이 가지는 경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토 지역 하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여 외부 주차의 부담을 줄인다. 차량 진출입은 기존 사항을 유지하되, 지하주차장 구간은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배후 도로는 우회전만을 허용하여 차량의 소통과 속도를 조절하고, 지하철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그림 24 참조).

2. 동선계획

동선계획은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호안을 따라 배치된 보행로는 굴곡형의 호안과 수면을 가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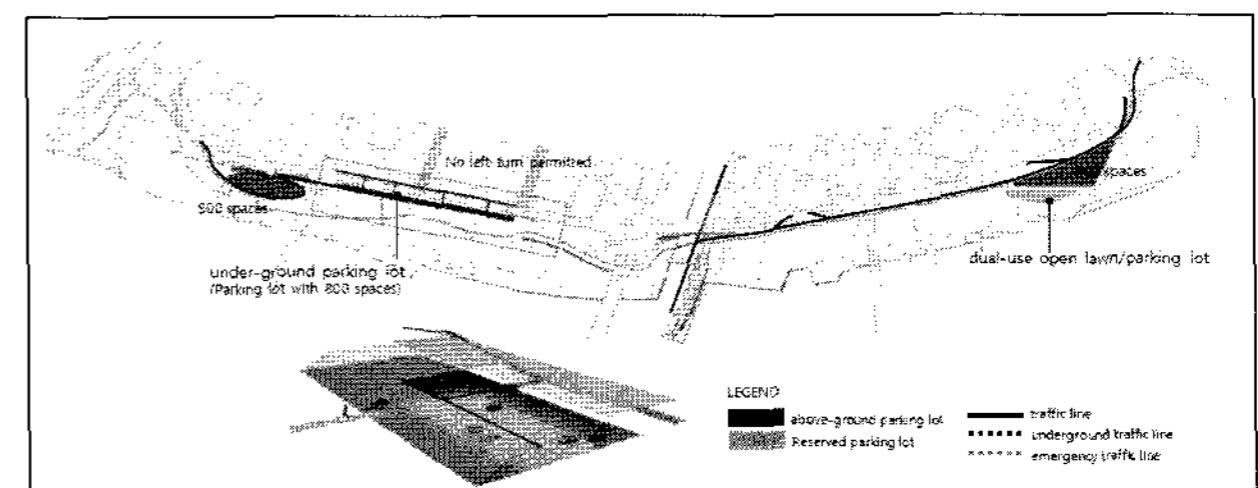


그림 24. 주차 및 교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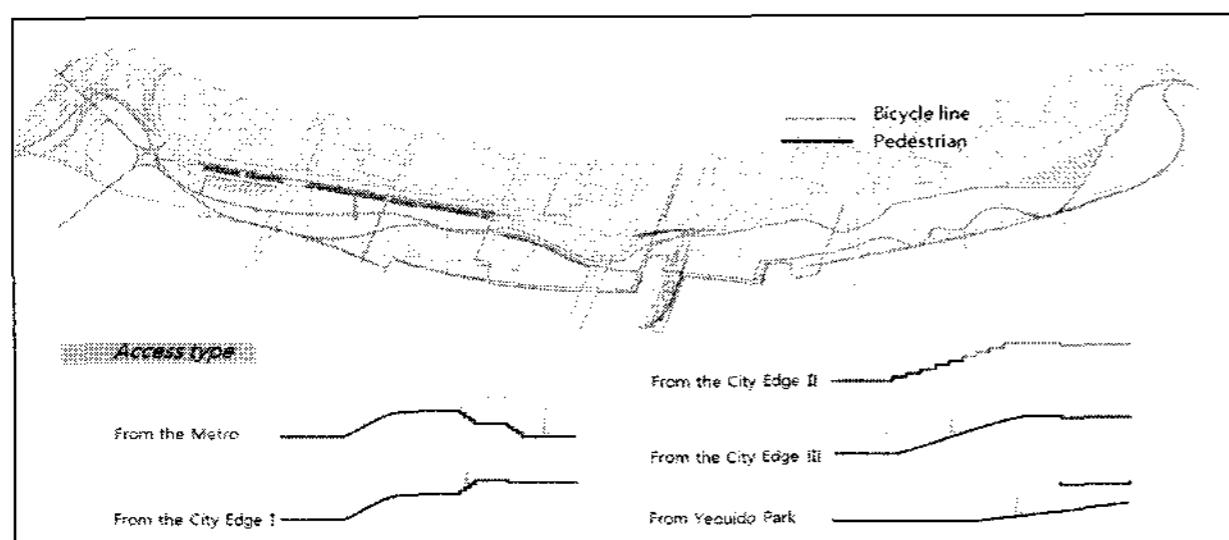


그림 25. 동선계획

르는 데크와 다양한 경관을 갖는 산책로 등으로 변화를 주어 흥미로운 보행동선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상부도로와 인접한 지역은 성토를 통해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람들을 유인한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통로, 보행 데크, 교량 등 다양한 유형의 진입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게 워터프런트로 진입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그림 25 참조).

3. 활동 프로그램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오픈스페이스는 계절별 프로그램과 다양한 테마 이벤트를 도입하여 4계절 다른 분위기의 장소로 연출한다. 대규모 오픈스페이스에서는 불꽃축제, 영화축제 등 자유로운 테마를 가지는 정기 이벤트를 개최하고, 장소별로 소규모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강가에서는 뱃놀이와 낚시 등의 동적인 활동과 밤섬의 철새를 관찰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그림 26 참조).

VII. 결론

본 설계안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국제 설계경기의 공동 당선 안으로서, 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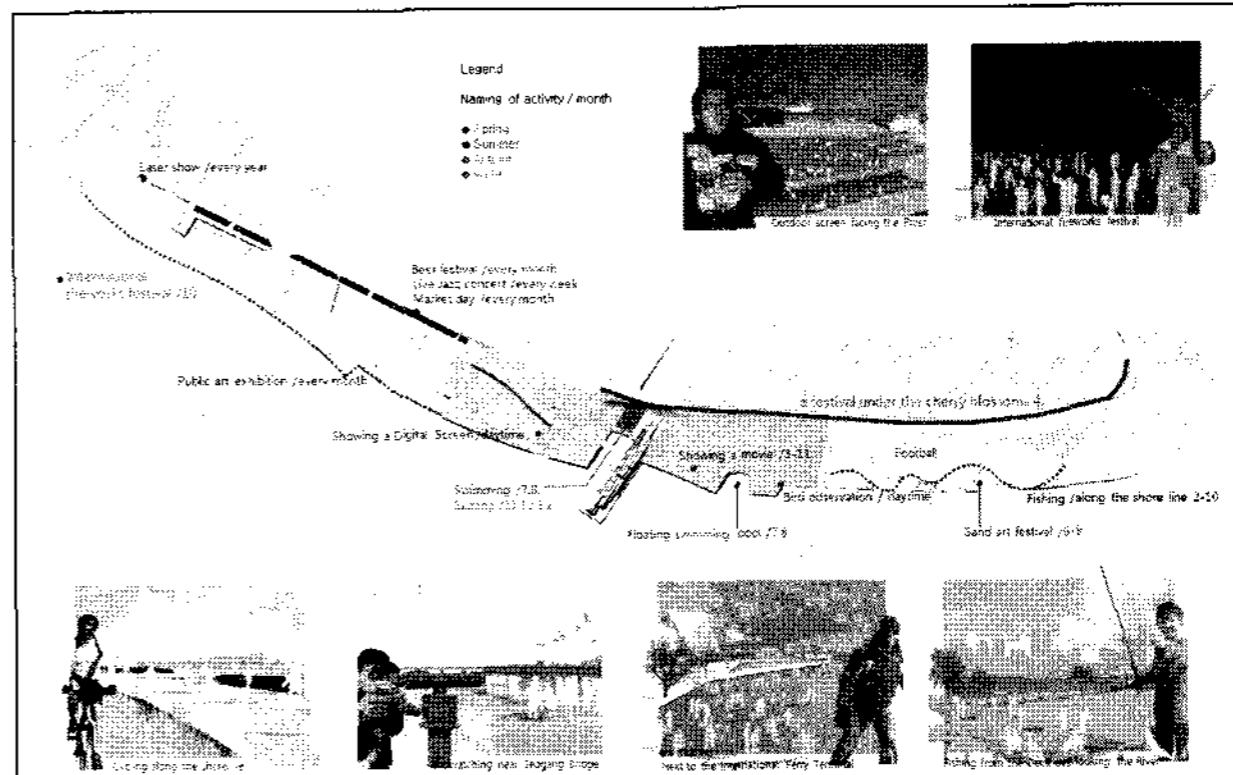


그림 26. 활동 프로그램

도 워터프런트가 여의도의 장소성을 반영하고, 추후 진행될 역동적인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장소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이슈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한강에서 유일하게 남은 큰 섬으로서 서정성과 감성적인 기억을 가진 장소로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르네상스 계획상의 국제 업무지구로 설정된 용산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도시적인 용산의 모습에 반해 목가적인 풍경과 고층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계획하여 상호관계를 피하고자 한다. 셋째는 여의도 중심 오픈 스페이스이며 추후 도시 재창조의 잠재력을 가진 여의도 공원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이슈를 기반으로 한 기본 계획은 크게 물가를 되찾고, 도시를 활성화 하자는 2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자연형 호안 조성을 통해 물과의 경계를 허물어 워터프런트의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도시와 소통하는 도시 레이어를 얹어서 마스터플랜을 구성하였다.

첫째, 도시민들에게 잊혀졌던 '물가'를 되찾아 주기 위한 방안은 '물과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집약하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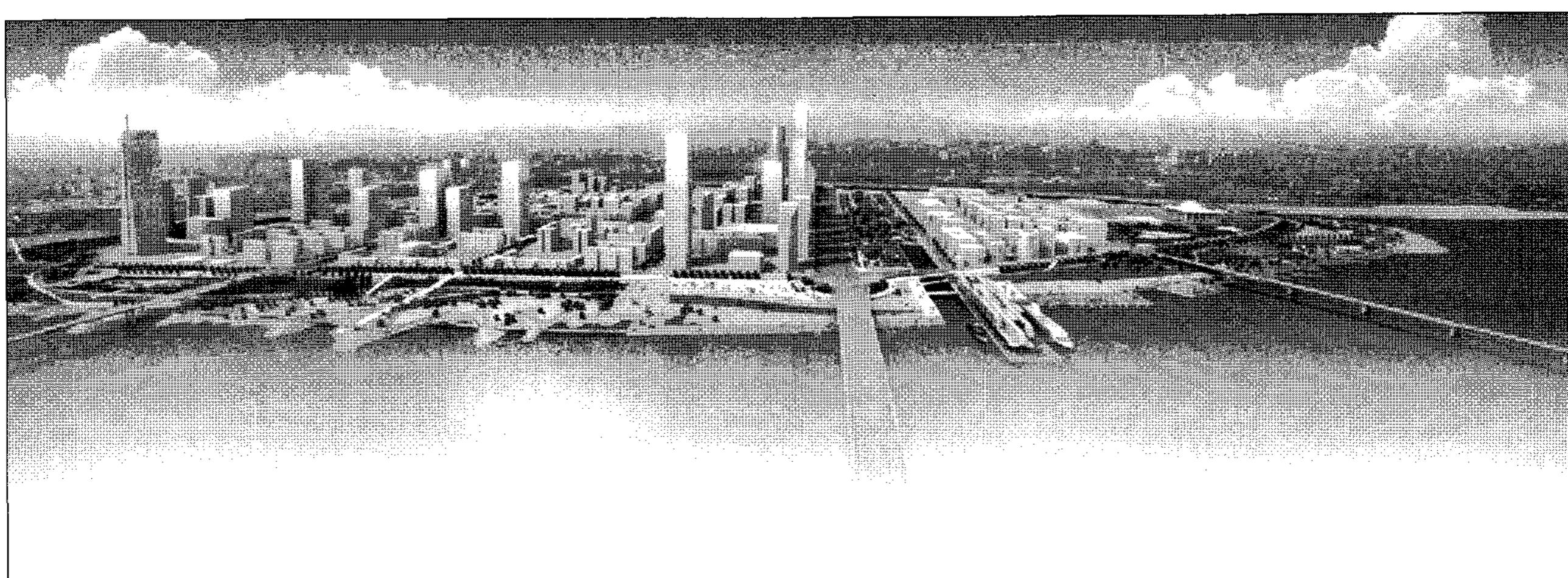


그림 27. 조감도

안에 표현하였다. ‘물과 경계 허물기’의 구체적인 실천은 물을 대하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기반으로 계획하였다. 콘크리트 호안을 허물어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하고 물과 접하는 부분은 서정적이고 운치 있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의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자연형 호안은 물과의 접촉 면을 늘려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수제에 의한 모래톱의 변화를 유도하여, 강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워터프런트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도시와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집약되었다. ‘도시와 경계 허물기’는 계획 대상지와 면하는 배후 도시의 구역별 특성에 따라 3가지 성격의 공간으로 구분되었다. 대규모 주거지구와 면하는 지역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체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수공간을 도입하였다. 여의도공원과 면하는 지역은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마리나와 국제 여객터미널을 계획하여 여의도의 관문이자 워터프런트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국회의사당과 윤중로와 접하는 지역은 기존 벚나무 길의 운치를 살려 서정적인 옛 강둑을 재현하여 여유로운 강변의 모습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민들에게 40년간 잊혔던 한강의 ‘강가’를 되찾는 작업의 초기단계이다. 본 계획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사람들과 물이 적극적으로 소통됨으로써 도시와 강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계획안에는 비워둔 공간도 있으며, 비결정적인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이러한 미완의 요소들은 도시민들이 강을 즐기는 소통 과정과 거대한 강물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갈 것이다.

주 1. 이 설계안은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여의도 한강공원 조성사업 국제 지명초청 설계경기’에서 공동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인용문헌

1. 박현호(2005) 한국인의 애독 작품-향토적 서정소설의 미학. 서울: 책 세상.
 2. 서울시(2007a)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3. 서울시(2007b)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4.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2007) 한강 수로조사 보고서.
 5.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여가공간으로서의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보고서.
 7. 이윤영(2000) 서울시 여의도 지구의 이미지형성과 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전유찬, 권영모, 김태윤(1992) 워터프론트와 미래형 도시개발. 부산직 할시 시정연구단 보고서.
 9. 전형준(2000) 여의도 샛강 및 밤섬이 한강 홍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인하(1996). 여의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김수근의 1969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2): 123-134.
 11. 진석현, 김진균(2005) 한강 시민공원의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5(1): 175-178.
 12. 홍형순, 김도경, 정한호(2006)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2단계 사업지구 상 징공원 및 수변공원 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4(3): 104-119.
 13. <http://hangang.seoul.go.kr>
 14. <http://seoul.go.kr>
 15. <http://www.incheonferry.co.kr>
 16. <http://www.portincheon.go.kr>
 17. <http://www.pps.org>
 18. <http://www.waterfrontcenter.org>

원고접수일: 2008년 4월 1일
심사일: 2008년 4월 30일(1차)
 2008년 5월 7일(2차)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3인의 멘토 실사필